

“해트트릭으로 자신감 ↑ …본선 확정 최선”

지난해 발목 부상 후유증도 날리고
통산 27골 '리그양 표 역대 최다골'
“조규성·김건희 좋은 후배·경쟁자
손흥민·황희찬 공백…잘 해낼 것”

유럽무대 진출 후 처음으로 해트트릭을 폭발한 황의조(30·보르도)가 이번에는 국가대표팀에서 맹활약을 다짐했다. 25일(한국시간) 터키 이스탄불에 차려진 대표팀의 훈련 캠프에 합류한 황의조는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자신감이 올라왔다. 경기력을 회복한 뒤에 대표팀에 올 수 있어 기분 좋다. 대표팀에서 더 좋은 활약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황의조는 전날 열린 스트라스부르와 2021~2022시즌 프랑스 리그양(1부) 홈경기에서 3골을 휘몰아치며 보르도의 4-3 승리에 앞장섰다. 2019~2020시즌 프랑스 진출 이후 첫 해트트릭의 기쁨을 느낀 그는 통산 27골을 기록해 박주영(25골)을 넘어 리그양 아시아 선수 역대 최다골 신기록을 세웠다.

부상 우려도 말끔히 씻어냈다. 지난해 11월 발목 부상을 당해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그는 복귀했다가 다시 쓰러지면 우려를 자아냈다. 하지만 최근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왔다. 황의조는 “계속 경기를 하고 운동도 했다. 구단에서도 많이 배



축구국가대표팀에 합류한 스트라이커 황의조가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7차전 레바논과 원정경기를 이틀 앞둔 25일(한국시간) 본선행을 조기에 확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24일 2021~2022시즌 프랑스 리그양 스트라스부르와 홈경기에서 해트트릭으로 기세를 올렸다. 사진제공 | 대한축구협회

려해줘서 조절하며 훈련한다. 지금은 문제가 없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유럽과 없이 나선 아이슬란드(5-1 승), 몰도바(4-0 승)와 평가전에서 크게 이겼다. 조규성(김천 상무), 김건희(수원 삼

성) 등 후배 공격수들이 인상적 플레이를 펼쳤다. 황의조는 “두 선수 모두 좋은 장점을 가진 선수들인데, 그 장점을 잘 보여준 것 같다”며 “나 역시 경쟁자로서 잘 준비해야겠다”고 말했다.

벤투 감독은 몰도바전에서 전방에 공격수 2명을 배치한 투톱 전술을 가동했다. 이에 대해 황의조는 “원톱보다는 투톱이 아무래도 더 공격적인 것 같다. 원톱에선 활동반경이 더 넓어져 그만큼 많이 움직여야 한다. 투톱은 파트너와 호흡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27일 레바논과 최종예선 7차전, 다음달 1일 시리아와 8차전을 치른다. 최종예선 A조에서 선두 이란(승점 16)에 이어 조 2위에 올라있는 한국(승점 14)은 이번 중동 원정 2연전을 통해 본선 진출을 조기에 확정할 수도 있다. 황의조는 “모든 선수가 바라는 목표다. 최대한 빨리 결정지어 남은 경기(9·10차전)는 마음 편하게 준비하고 싶다. 개인적으로도 준비를 잘했으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고 싶다”고 강조했다.

아쉬운 것은 주장 손흥민(토트넘)과 황희찬(울버햄턴)이 부상으로 이번 2연전에 함께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황의조는 “두 선수 모두 대표팀에서 중요한 선수들이어서 빈자리가 크겠지만, 모든 선수가 잘 준비한다면 충분히 좋은 경기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현길 기자 choing2@donga.com



최혜진 안나린

최혜진·안나린, 28일 데뷔전 출격 LPGA 신인왕 ‘선의의 경쟁’ 시동

게인브릿지 LPGA…한국선수 총 14명 참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회원 자격으로 맞는 데뷔전. 신인왕이라는 같은 꿈을 품고 있는 최혜진(23)과 안나린(26)이 미국 무대 정복을 위해 의미있는 첫 발을 내딛는다.

둘은 28일(한국시간)부터 나흘 동안 미국 플로리다주 보카라톤에서 열리는 게인브릿지 LPGA(총상금 200만 달러·23억9000만 원)에 출격한다. 올해 LPGA 투어 두 번째 대회인 게인브릿지는 첫 번째 풀 필드 대회로 총출전인원은 120명. 지난해 12월 열린 캘리포니아(Q) 시리즈를 통과한 신인들도 대거 나선다. 지난해 열렸던 개막전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는 최근 2년 간 투어 우승자만 참가할 수 있었다.

지난해까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활약한 최혜진과 안나린은 각각 통산 10승, 2승씩을 수확한 스타플레이어 출신. LPGA 진출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지옥의 레이스’로 불리는 Q 시리즈에서 각각 공동 8위, 수석을 차지하고 미국 무대 도전권을 따냈다.

최혜진은 그야말로 KLPGA 투어를 상징하는 ‘슈퍼스타’다. 2019년 5승을 쓸어담고 대상, 상금, 다승 등을 싹쓸이하며 최고의 한 해를 보내는 등 2020년까지 3년 연속 대상을 거머쥔 ‘자타공인 KLPGA 최고 선수’다. 당초 2020시즌 말 미국 도전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19 탓에 도전 일정이 미뤄졌고, 이에 따른 심리적 아쉬움 탓인지 지난해에는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무관의 아쉬움을 맛보기도 했다.

하지만 아마추어 신분이던 2017년 초창기 선수로 출전한 LPGA 투어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에서 ‘깜짝 준우승’을 달성했고, 2020년 2월에는 ISPS 한다 빅오픈에서 2위를 기록하는 등 간간히 나선 LPGA 대회에서도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일찌감치 ‘월드 클래스’로 평가 받았다.

2020시즌에만 2승을 수확한 안나린은 총 110명이 참가한 Q 시리즈에서 뛰어난 기량을 과시하며 수석의 영광을 차지했다. 지난해 10월 국내에서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는 우승 경쟁을 벌이다 공동 3위에 오르기도 했다.

11일 출국한 둘은 그동안 캘리포니아의 사막 도시 팜 스프링스에서 개인 훈련시간을 가졌다. 최혜진은 라 퀸타의 PGA 웨스트 골프장, 안나린은 랜초 미라지의 미션 힐스 골프장을 찾아 맘을 즐겼다.

둘의 올 시즌 목표는 명확하다. 안정적으로 데뷔 시즌을 치르고, 나아가 생애 한 번뿐인 신인왕에 오르는 것이다. 신인왕은 함께 이룰 수 없는 꿈인 만큼, 둘은 선의의 경쟁을 다짐하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 나서는 한국 선수는 둘을 포함해 박인비(34), 이정은(26) 등 총 14명. 지난해 개막전에서 공동 8위로 예열을 마친 박인비는 다시 한번 시즌 마수결이 우승 상자에 나선다.

디펜딩 챔피언인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다(미국)는 2년 연속 우승을 노린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보르도 “황의조, 이적료 1500만 유로 줘도 안 보내”

현지 매체들 시즌 끝까지 잔류 전망
황의조 “미래 보단 지금 팀에 집중”

한국 최고의 골잡이 황의조(30·보르도)의 이번 겨울 이적은 없을 것 같다. 스웨스트 등 북부의 프랑스 매체들은 25일(한국시간) “보르도는 이번 겨울 이적시장에서 황의조를 지킬 계획이다. 시즌 종료까지는 팀에 잔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에 따르면 1500만 유

로(약 203억 원)의 이적료를 제안해도 보르도는 황의조를 팔지 않을 전망이다. 2019년 여름 감바 오사카(일본)에서 보르도로 이적할 당시 200만 유로(약 27억 원)였던 몸값이 경중 뛰었다. 독일의 축구이적료전문매체인 트란스퍼마르크트가 매긴 시장가치는 500만 유로(약 68억 원)지만, 보르도의 생각은 다르다. 최소 1000만 유로(약 136억 원) 이상이라는 내부 판단이다. 지난해 여름 올랭피크 마르세유가 황의조의 영입에 관

심을 보였으나, 보르도는 ‘1000만 유로’를 기준으로 단호히 거부했다. 황의조의 2021~2022시즌은 화려하다. 24일 스트라스부르와 프랑스 리그 양(1부) 22라운드 홈경기에서 해트트릭을 작성하며 팀의 4-3 승리를 이끌었다. 또 리그 양 개인통산 27골(시즌 9골)을 쌓아 박주영(울산 현대)이 보유했던 기존 기록(25골)을 깨고 리그 양 아시아선 수 역대 최다골 기록도 경신했다. 레바논(27일)~시리아(2월 1일)로

이어질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7·8차전을 위해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이 이끄는 국가대표팀에 합류한 황의조도 당장의 이적 루머에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다. 르 퀴프를 비롯한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미래는 알 수 없으나 당장이 중요하다. 보르도 선수로서 우리 팀에 집중할 뿐”이라고 밝혔다. 강등권 탈출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는 보르도는 일단 생존에 성공하면 2023년 여름까지 계약된 황의조의 이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6번째 올림픽’ 이채원 “딸 깜짝쇼 감동”…빙속 정재원 “4년간의 성장 보여줄 것”

올림픽 결단식 참석한 45명 선수들
모처럼 고된 훈련 쉬고 희망찬 각오
브레이크댄스 대표팀 공연엔 환호

2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2022베이징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선수들이었다. 이번 올림픽에 참가하는 63명의 선수들 중 해외훈련과 자가격리 등의 이유로 불참한 18명을 제외한 45명은 모처럼 고된 훈련에서 벗어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2024파리올림픽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브레이크댄스 국가대표팀의 축하공연이 펼쳐지자 선수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시작부터 응원 메시지가 이어졌다. 김부겸 국무총리,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윤홍근 선수단장, 2020도쿄올림픽에 출전했던 선수들이 진심어린 응원을 보냈다. 행사장 곳곳에서 박수가 터졌다. 크로스컨트리 이채원(평창군청), 스피드스케이팅 정재원(서울시청), 여자컬링 임명섭 감독은 국민의 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선거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상현 의원으로부터 꽃다발을 전달받았다.



크로스컨트리대표팀 이채원, 스피드스케이팅대표팀 정재원과 여자컬링대표팀 임명섭 감독(왼쪽부터)이 2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2022베이징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 도중 대회에 나서는 소감을 밝히고 있다. 주현희 기자 telh1147@donga.com

특히 이채원의 딸이 직접 보낸 메시지는 큰 울림을 줬다.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를 통해 올림픽에 첫발을 내디딘 이채원은 베이징무대를 밟으면 6차례 올림픽 출전의 기록을 남기게 된다. 이는 동·하계를 통틀어 이규혁(빙상), 최서우, 최홍철, 김현기(이상 스키)의 4명만이 달성한 타이 기록이다.

이채원은 “딸이 이렇게 깜짝 쇼를 할 줄 몰랐다. 올림픽 6회 출전은 열심히 달려온 결과라고 본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올림픽에 처음 출전했던 마음 그대로 설레고 떨린다. 최선을 다해 결승선을 통과하겠다”고 밝혔다. 스피드스케이팅 매스스타트 메달 후보로 꼽히는 정재원의 각오도 대단했다. 그

는 “더 책임감을 갖고 훈련과 경기에 임할 수 있게 됐다”며 “평창대회 때는 첫 올림픽이다 보니 많이 긴장하고 떨어져 내가 준비한 것을 못 보여드렸다. 이번에는 지난 4년간 많은 경험을 쌓고 성장했다는 느낌이 든다. 긴장하지 않고 준비한 모든 것을 후회 없이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